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히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서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慶南中同窓會報

발행·편집인: 박 동 열
발행처: 경남중고동창회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 (051)245-7551 ~ 3, FAX: 245-7550
홈페이지: www.kyungnam.or.kr
인쇄처: (주)중앙인쇄 (051)636-9477
재경동창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복빌딩 504호
Tel: (02)783-0071 ~ 2, FAX: (02)783-0073



치열한 변상격전. 지난 7월20일 열린 제3회 기별대항 용마바둑대회에서 출전한 대표 선수들이 동기회의 명예를 위해 선전하고 있다. 이날 제 13A·18·29회가 각각 중·장·청년부에서 우승했다.

본부 주최 기별대항 용마바둑대회 성황 제13A·18·29회 왕중왕 등극

준우승 제11·17·31회
감투상 제10·14·34+39+40회

제13A·18·29회가 지난 7월20일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 6층 중앙바둑센터에서 열린 동창회장기 쟁탈 제3회 기별용마바둑대회에서 각각 중·장·청년부에서 우승, 왕중왕에 등극했다. 이들 3개 동기회 선수단은 이날 오후 5시30분 거행된 시상식

에서 대망의 우승기를 응원단 앞에서 높이 흔들며 감격을 함께 누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스위스리 그로 진행된 대국에서 청년부(제10·11·12·13A·13B)제13A팀은 결승국에서 제11회의 추격을 따돌리고 패왕(霸王)이 됐다. 제11회는 준우승을, 제10회는 감투상을 각각 받았다. 장년부(제14·16·17·18회)는 제18회가 우승을, 제17회가 준우

승을, 제14회가 감투상을 각각 차지했다. 청년부(제27·29·30·31·34+39+40회)는 제29회가 다크호스 제31회를 물리치고 기왕(棋王)의 영광을 안으면서 통산 대회 2관왕이 됐다. 제31회는 준우승을, 제34+39+40회는 감투상을 받았다. 특히 행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프로기사 장명한 4단을 초빙, 다면지도기 등 특별이벤트를 마련해 흥미를 끌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30분 김동회 용마바둑회장(18회)이 주재한 개회식에는 박동열 본부회장(8회·해운대성심병원장)을 비롯한 임원 다수와 용마바둑회 집행부, 선수·응원단 등 15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프로기사
장명한 4단
다면지도기
허섭(10회) 2점바둑 이겨



이날 특별이벤트로 마련한 다면기는 오후 2시부터 프로기사 장명한 4단이 지도(사진), 많은 바둑 애호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장 4단은 허 섭(10회)·강창수(12회)·서석철 동문(29회) 등 6명을 맞아 다면기 지도를 했다.

특히 장 4단에 맞서 2점바둑을 둔 허 섭 동문이 고투 끝에 예상을 뒤엎고 이기자 일제히 환성과 함께 박수가 터졌다. 장 4단은 "허 기사의 기량은 나이에 비해 돋보인다"며 "행마 전개법과 끝내기 묘수에 연구를 더하면 기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칭찬했다.

본부 용마바둑회 정기총회... 새 회장 김동회(18회)

본부 용마바둑회는 지난 7월4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 빌딩 6층 중앙바둑 센터에서 한병조 회장(13회·본부부회장)주재로 열려 신입회장에 김동회 동문(18회·상지건축사무소 대표)을 선출했다(사회 임강택

총무·22회). 용마 바둑회장배 쟁탈 제2회 바둑대회(개인전) 결산보고와 동창회장기 쟁탈 제3회 기별대항 용마바둑대회 계획안, 임원 개선 등 주요의안을 의결했다.

제31회 패권 '헝가레'

재경동창회 기별야구대회... 준우승 제37+38회 합동팀
치너출전 제49회 3위 이변·노장 제19+21회 4위 마크

지난 6월22일 우리은행 도농야구장에서 폐막된 재경동창회 주최 제35회 기별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제31회동기회가 패권을 쟁취했다. 특히 치너출전한 제49회동기회는 막강한 팀들을 따돌리고 3위에 오르는 이변을 낳았다. 이날 제31회는 제37+38회 합동팀을 맞아 치열한 공수전을 펼친 끝에 21-11로 대승했다. 또 앞서 열린 3, 4위전에서 신에 제49회는 투타에서 저력을 과시한 노장 제19+21회 합동팀을 13-12로 아슬아슬하게 물리치고 3위를 마크했다. 신준호 재경동창회장(14회·

롯데종합유유 회장)은 시상식에 이은 폐회사를 통해 "전통의 기별야구대회는 우리 동창회의 활성화와 용마가족의 화합·결속을 촉진시켜온 활력소"라며 "해마다 신명 넘치는 대회가 되게끔 성원해준 용마가족 여러분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올해 대회는 지난 6월1일 우리은행 도농야구장에서 개막됐다. △타격상 : 1위 홍영근(49회-7할7푼7리)·2위 김태건(19회-5할8푼8리)·3위 김문기(31회-5할7푼1리).



재경동창회 주최 제35회 기별대항야구대회 시상식(왼쪽)에서 제39회팀이 우승기를 받고 있다. 오른쪽은 대회식에 참석한 동문들.

김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용마바둑대회가 날로 활성화됨에 따라 저변확대가 기대된다"며 "집행부가 더욱 사명감을 높여 운영함으로써 그 저력을 동창회 발전에 직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열 본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용마바둑대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바둑을 사랑하는 용마가족들은 깊이 인식해 이 대회를 더욱 육성시키고 동창회의 조직강화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동열 본부회장은 본부의 대회지원금 100만원과 개인 격려금 등을, 박창홍 경총회장(14회)은 경총회 격려금을, 재경동창회 용마기우회(회장 김두환·16회)는 격려금 50만 원을 각각 김동회 용마바둑회장에게 전달했다.

Enjoy **GOLF!** Enjoy **LIFE!**

▶ 골프회원님께 "휴대용 골프백"을 드립니다. ◀
▶ 골프회원님은 짐질방과 달림방이 무료입니다. ◀

가나다라골프연습장 19회 이 창 흥

실내 가나다라골프연습장

스명교정센터 짐질방 달림방

7월 이순경 **OPEN**

동문여러분! 가까운 곳에 골프연습장이 생겼습니다. 짐질방과 달림방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국제시장 뒤 가나다라빌딩 (구 조흥은행 신창동 지점)
문의 TEL : 244-3000

이 글은 영화감독인 필자가 미국 남가주지역 동창회 총무 재임시 회지 <2002용마 Southern California>에 '존경하는 경남중고 동문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쓴 제언을 요약한 것이다.<편집자>

동창회의 조직 강화와 활성화는 동문-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게끔 집행부가 능동적으로 운영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모임을 대수롭잖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연락자체를 귀찮아 하고 이러한 모임에서 별다른 의의를 전혀 찾지 못하는 회원조차도 집행부 요원이 성의있게 계속 연락하면 대부분은 어떠한 형태이건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남가주회 경우 동창회 모임에서 선-후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다는 것은 미래의 동창회 운영에 명백한 문제점이 될 수 있음을 모두들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집행부의 힘이 미약했다는 의미이자 또한 미래의 동창회 취약성을 여실히 나타내는 징조라고 생각한다.

동문들은 여건이 되는 대로 동창회 모임에 참여하거나 집행부의 요청에 부응하여 회비를 내거나 하면 그것으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

시평

김의철

제27회·미국 남가주회 전 총무·영화감독



집행부부터 일어나 뛰어들라

다. 간혹 시간과 성의를 낼 여지가 있어 의견을 피력하거나 직접 동창회를 방문하여 지원금이나 찬조금을 쾌척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일 것이다.

어찌보면 모든 동문들이 모두 일정기간 집행부가 되어 봉사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을 터인데, "성의를 가지고 일정기간 봉사해봐야 전혀 의미 없는 노력일 뿐"이라며 동문들의 무관심을 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의 미흡한 연출력을 문제삼지 않고 관객수준을 타하는 영화감독 아류와 유사한 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스스로 기여해야 할 바를 인식하지 못한 채 집행부만 탓하려 하거나 필요시에 무관심과 타율적

언행을 내보이는 동문들도 객관적으로 한심해지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매년 동창회 집행부 구성에 애로를 겪는 남가주회를 보는 필자의 심경은 웬지 상쾌하지 못하다. 자부심을 느껴 오던 예전의 동창회가 아니라는 생각과 전임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성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배 늦은' 자성이 앞서기 때문이다.

동문 각자의 의지와 힘이 모아져서 보다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창회를 운영해가는 것이 동문 모두를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란 점에 동의한다면 모두가 일정기간 책임과 봉사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방안으로 >동창회 기금 확충 >이 기금

의 지속적인 조성제도 구축 >이러한 안정된 운용자금을 바탕으로 산악회 등 구성, 적극적인 경조사 지원, 장학금 적립, 전 미국 경남중고 네트워크 구성 등 매년 기획적이고 참신한 동창회 사업의 능동적 발굴 >동창회 행사에 모든 동문들의 자발·능동적 참여 유도 >전 회장단과 이사진 모임을 별도로 구성하고 매년 이 분들에 대해 예우할 것 등을 제안한다.

어느 구석진 마을에서 열댓 명의 신도로 시작한 개척교회도 3년 정도 노력하면 내실을 쌓은 진취적인 신앙단체로 발전하여 안팎으로 가치있는 일을 기획하고 활발히 활동하는데, 우리 동창회도 이러한 발전과 변신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남가주동창회는 어느 동창회보다 화합과 결속력이 강한 조직으로 저력을 과시해 오고 있음을 동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아직도 이러한 이상적인 꿈과 같은 제안이 진실로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면, 아마도 억지 식의 보조 교대나 강압 식의 임무 교대 혹은 책임 회피 식으로 이어온 작금의 동창회 집행부 운영방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흑염소 육회 맛에 "죽여주네" 이구동성 제6회, 산성마을에서 여유회

제6회동기회는 지난 6월1일 금정산 기슭 산성마을에서 봄야유회를 열었다.

허광열 회장을 비롯한 동문 30여 명은 이날 정오 중점집에 모여 흑염소와 생오리로 술잔을 나누며 회포를 풀었다.

허 회장은 앞서 인사말을 통해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육기도 잘 먹으며 노래도 흥겹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기 때문"이라며 "혈압 높이면서 살지 말고 늘 즐겁게, 마음 편하게 살자"고 말했다.

우정 넘치는 술잔이 오가는 가운데 분위기가 달궈지자 더러는 "회춘에는 염소와 오리 육회가 최고"라며 안주를 더 달라고 앙탈(?)을 부리다가 총무(최병수)의 굳기잡기에 걸려 기가 죽었다.

일행은 구수한 된장찌개가 곁들여진 식사를 끝내자 여흥판을 벌여 노래와 춤으로 실력들을 발휘했다.

지난날 한가락했던 동문들은 '홍두야 울지마라' '감격시대'



남해 여름캠프안 확정 '백수탈출' 동문 등 격려 제30회동기회 이사회

제30회동기회는 지난 7월3일 오후 7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급행장에서 이사회를 열었다.

김병기 회장이 주재한 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 각 서클 회

'청춘을 돌려다오' '눈물젖은 두만강' 등 칠십평생 수십 번 부르고 들어 이젠 애창곡이 된 노래들이 이어져 나오자 어깨동무를 한 채 합창으로 불렀고 더러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제6회 동문들이 금정산 기슭 산성마을에서 흑염소 육회·불고기 파티를 벌이고 있다.



제15회동기회, 새 집행부 출범 후 첫 정기총회

정창환 직전회장 등 공로패

제15회동기회는 지난 6월13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일동 크라운호텔에서 '박찬호' 출범 이후 첫 정기총회를 열었다(사진).

박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50여 명이 참석, 회무보고를 듣고 동기회와 동기회관 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승인했다.

앞서 박 회장은 정창환 직전 회장과 손부홍 직전 동기회관운영위원장, 강무상 김판열 조일랑 직전 총무 등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편 한해수 동기회관운영위원장은 많은 동문들이 회관을 자주 방문해줄 것을, 정준수 용마산악

회 수석부회장은 기별대항 등산대회 계획안 설명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각각 당부했다. 이어 박 회장 주관의 노래방 공연이 뒤풀이로 장식됐다.

부인 동반 23명 금정산에 일오산우회, 협찬금 풍성

일오산우회는 지난 6월15일 동문 17명과 부인 6명 등 모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정산 북문~동문~온천장 코스의 산행대회를 열었다(산행대장 김황영).

해단식은 할매곰탕집에서 열렸는데 동기회에서 산우회발전기금을, 박찬호 동기회장과 김 산행대장이 각각 금일봉을 협찬해 '즐거운 하루'가 됐다.



본부동창회 홈페이지는 용마가족들의 친숙한 이야기와 동창사회의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kyungnam.or.kr

문의사항은 동창회 사무국(051-245-7551~3)으로 연락하십시오.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글마을'에의 초대



용마가족 여러분을 회보의 집필자로 모십니다. 시·수필·여행관광기·취미생활수기·학창시절 추억담·시평·제안 등 빛이든 자료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시오.

<보낼 곳>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52-3 골든O/T 411호
TEL : (051)245-7551~3 FAX : (051)245-7550

덕유산 수놓은 '원색의 우정'

제19회 경부합동산행대회...가족동반 67명 화합메아리

92년 '전국한마당' 이래 10년 만에 저력 과시

살갑고 결집력이 강한 제19회 동기회 용마가족들이 신록 짙은 덕유산에서 경부합동등반대회를 열어 '영원한 우정'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산사랑대부'는 지난 92년 6월 충남 대덕연구단지에서 펼친 '전국한마당'(200여 명 참석) 이래 10년 만에 저력 과시였다.

지난 5월11일 오후 3시 무렵, 덕유산은 제19회 서울-부산 용마가족 67명이 연출한 '원색의 낭만'으로 수놓아졌다. 서울에서는 김창권 회장과 유문환 산행대장 등 37명(부인 13명 포함)이, 부산에서는 김경재 회장과 김봉호 산행대장 등 30명(부인 12명 포함)이 참가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20분 전북 무주구천동 주차장, 서울-부산의 용마가족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서로 악수와 포옹과 익살과 격려 등으로 재회의 감격을 교환(交歡)했다.

오전 11시쯤 일행 중 극성파들은 구천동 계곡을 따라 백양사로 올라가 정상에 닿았다.

좀 부실한 일부는 무주리조트로 이동, 콘도라를 타고 올라가 정상 을 밟았다.

산행을 무사히 마친 일행은 콘도라를 타고 내려와 오후 4시30분부터 진행된 명가식당에서의 단합회를 즐겼다. 2시간 넘게 연 출된 회식은 부인 소개·부산과 서울 회장 인사말·선물 교환·

축배·노래와 장기자랑 등으로 이어졌다. 헤어질 때는 아쉬움이 짙어서인지 얼른 차에 오르지 못했다. "건강하거래이, 또 만나자"란 말만 남기며...



제19회 서울·부산 용마가족들이 덕유산에서 펼쳐진 경부합동산행대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성산 거뜬히 오르고 내원사 계곡서 단합회 용마원투산우회

용마원투산우회(제12회동기회) 산꾼 11명은 지난 6월29일 경남 양산시 근교 천성산에 올라 무기력해지기 쉬운 여름철 심신을 담금질했다.

남기용 회장(동기회장 겸임)이 이끈 일행은 천성산 정상에서 "노병은 살아있다"라고 외치며 노

익장을 과시한 후 내원사쪽으로 하산했고, 계곡에서 휴식을 겸한 단합회를 즐겼다.

내년 홈커밍 준비 추진 제28회, 섭외분과위 개최

제28회동기회 2004년홈커밍준비위원회 섭외분과위 제1차 회의가 지난 6월12일 오후 7시 부산 서면 백만석초밥집에서 조광제 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이날 회의는 △격월제(작수달)마다 모임 개최 △동문 총괄명부 작성 △초청 인사 명단 작성 △중학교 졸업 동문 적극 참여 홍보 △행사 슬로건 공모 등 의안을 가결했다.



부산에서 우정의 그린 샷을 날린 제12회 동기회 서울·부산 골퍼들이 친선대회 후 단합회를 열고 있다.

경부 골퍼들 '우정샷' 초원 가득이

제12회, 서울 14명 초청 친선대회 후 축배나누

제12회동기회 부산·서울 골퍼들이 부산에서 싱그러운 라운딩을 펼쳐 화합과 결속을 과시했다.

제12회는 지난 6월18일 재경 골퍼 14명을 부산으로 초청, 부산

의 선수 8명과 어울려 친선경기를 했다. 일행은 라운딩을 끝낸 후 동래 온천장 대성초밥에서 단합회를 열고 우정 넘치는 잔을 돌리며 그간 묻어뒀던 하고 싶던 이야기들을 털어냈다.

또 동기회와 본부동창회의 활성화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들을 나눴다.

27년 전통 후라회 우정의 배팅 부산팀, 서울 원정 신승

제24회동기회 경부교류전 골프대회도 열어 역량결집

제24회동기회는 지난 5월18일 서울 교문동 LG구장에서 27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경부친선야구대회'를 열었다. 후라회로 불리는 제24회야구부는 지난 1977년 이래 한해도 거르지 않고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우정을 교환(交歡)하고 있다.

서울 후라회(회장 구본준)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부산 후라회(회장 장민재) 선수 등 18명과



제24회 경부친선 야구대회가 27년 전통으로 동창회 시상 '동기회교류전' 최고(最古)를 자랑하고 있다. 서울에서 열린 올해 대회에서 서울·부산 선수들이 상견례를 하고 있다.

서울의 선수·응원 동문 등 37명이 참석, 기량과 응원전을 펼친 끝에 부산팀이 9-8로 이겼다.

이날 경기에는 허구연 오기봉 이종구 동문 등 왕년의 스타(?)들이 출전, 6월의 재경주최 기별 야구대회에 대비한 전력강화를 도모했다.

선수·응원단은 대회가 끝난 후 강남구 팔도강산식당에서 단합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서울과 부산의 등산·바둑회 간사들은 등산·바둑대회도 경부전으로 개최할 것을 합의했다.

한편 전날 17일에는 서울 근교 백암비스타CC에서 경부친선골프대회(24명 참석)가 열렸고 저녁에는 50여명이 서초동 교육문화회관 근처 서촌별장에 모여 전야제를 펼쳤다.

바로잡습니다

동창회보 제340호(2003. 6. 11) 4면에 실린 특별기고 '피아니스트' 중 스피elman이 독일군 장교 앞에서 연주한 곡은 '발라드 1번 G단조 작품 38번(Ballade No.1 in G Minor op 38)'의 잘못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녹턴 C 사프단조'는 프롤로그이고 에필로그는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안단테 스피아니토와 화려한 대 폴로네이즈 G장조 작품 22번입니다.

적은 투자로 큰 효과 거두는 회보 광고!

원경 시랑의 외장실 문화를 추구합니다. 막힘 없는 초합수의 진공식 변기 시스템

특허 제품!

제1회 동창회장배장발 제2회 용마골프대회

경남중고동창회

회보 광고로 홍보하면 사업번창과 역량결집 위한 '황금알'을 낳습니다.

“...이러 모방적인 대패요...”

각 동기회·직능회·국내외 지역회와 사업하는 용마들의 광고협찬은 알찬 회보를 만드는 활력소입니다. 성원 바랍니다.

한국 최고의 유아·초등·중등·영어학원

Little Campus 리틀캠퍼스

051-567-XXXX

제37회동기회 임원 명단

메트로호텔

051-538-6678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사용했던 태극기
뉴욕 김동준 동문(7회) 일시 귀국 국회에 기증

김동준 동문(7회·전 뉴욕한미 공화당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은 최근 일시 귀국길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쓰던 태극기를 갖고 들어와 국회에 기증했다. 이 태극기는 70여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이 태극기는 193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가로 1m 43cm, 세로 84cm의 두꺼운 광목

천 앞면과 뒷면에 청·홍색의 천으로 긴 몸통의 태극양의(太極兩儀)와 청색의 4괘를 정교하게 재봉질해서 겹으로 붙인 것이다. 초창기 태극기인 '데니의 태극기'와 흡사한 이 태극기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2년 뉴욕 월도르프 아스토리아(Waldorf Astoria) 호텔에서 열린 한국독립만찬파티에서 사용했다고 한다.

이홍록(12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이홍록 동문(12회·변호사·사진)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으로 임명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동문은 6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6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 동문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과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세계 최초로 '영구적 인공심장' 개발
신체공학 세계적 권위 김성완(13회) 호암상 수상

21년 전 세계 최초로 '영구적 인공심장'을 선보여 생체의공학재료 개발의 선구자가 됐던 김성완 동문(13회·미국 유타대 석좌교수·사진)이 2003년 호암상(의학상)을 수상했다.

김 동문이 올해 호암상을 받게 된 공적에 따르면 약리학·신체공학의 세계적 권위로 기능성 생체고분자 물질을 개발하고, 치료용 유전자 운반 물질로 이용하는 연구를 통해 약물 전달 치료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데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호암상은 1994년 삼성그룹 이근희 회장의 선친인 삼성 창업주 호암(湖巖) 이병철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과학상·공학상·의학상·예술상·사회봉사상 등 5개 본상 부문과 특별상을 제정, 국내외 유공자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김 동문은 이러한 인공심장을 개발함으로써 지난 82년 12월 2일 집도한 바니 클라크 박사의 수술을 성공케 한 재미 한국인 과학자로 각광을 받았다(이하 관련기사 회보 152호-1983.2.7 발행 1면 참조). 서울대 문리대 화학과를 졸업한 김 동문은 지난 1966년 이 대학에서 이학석사학위를 받은 후 이듬해 미국 유타대에 유학했고 이곳에서 이학박사학위(논문 제목-이성분(異性分) 혼합액체의 표면장력에 관한 동계열력(熱力)학적 연구)을 받았다. 김 동문이 인공심장 개발 분야에서 독보적 공헌자가 된 것은, 인공심장의 주재료 혈액응고현상(혈전)을 일으키는 플라스틱에서 혈액단백질이 흡착되지 않는 폴리우레탄을 녹여 합성한 바이오폴리머를 개발했기 때문이다. 혈전문제를 해결하는 전기를 마련했던 김 동문은 한편 플라스틱에 약을 넣고 이것을 몸에 심어 약효가 서서히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새로운 투약법도 개발, 생체의공학재료 분야의 논문 80여 편이 세계적인 학술잡지에 실렸다. 모교에서 제1~6회까지 동양사를 가르쳤던 고(故) 김중구 은사의 자제인 김 동문은 당시 5년간에 걸쳐 10여개 국에 초청되어 강연을 했고 미국 보건연구원의 개발상을 받았다.

박철(11회)
미국 영화배우 사위 상봉



박철 동문(11회·전 MBC 이사)은 부인과 함께 최근 한국을 방문해 화제를 모은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인 사위 웨슬리 스나입스와 딸 나경씨의 큰절(?)을 받았다(사진). 박 동문을 비롯한 가족들은

지난 6월25일 서울 신라호텔에

서 기자회견을 한 사위와 딸을 반갑게 맞아 기쁨을 나눴다. 스나입스는 기자회견에서 "장모가 스태미나를 위해 우황청심환을 선물해줬다"며 장모의 '사위사랑'을 자랑했다. 이들 부부는 같은 달 14일 자가용비행기편으로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여행업계서 기반 굳건히 다진 천신일(15회)
IT산업 진출 나모인터랙티브 인수 화제 모아

천신일 동문(15회·세종 회장·사진)은 '단단한 입지'를 자랑하는 여행사 사주이자 IT사업인 세종나모인터랙티브 대표로 거듭났다. 현재 모기업인 (주)세중을 비롯해 세중여행·세중엔지니어링·세중건설·돌 박물관 등 11개 업체를 통괄하고 있는 천

동문은 세계게임박스를 설립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비디오 게임 'X박스' 판매에 나섰고,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업체 나모인터랙티브를 인수했다. 세종나모인터랙티브는 대표 상품인 홈페이지 제작 소프트웨어 웹에디터의 해외수출을 강화하는 한편 게임타이틀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게임프로그래밍 제작·유통을 추가했다. 현재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인 천 동문은 지난해 문화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고 명예레슬링 9단이다.

날리던 앵커, '예수의 포로' 돼 목사유학길에
MBC 사장 조정민(23회) 방송계 떠나

"저도 그랬지만, 세상에서 놀만큼 놀고 철저히 절망한 뒤 신앙을 가져야 더 깊은 신앙심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5년간 전국 각지에서 70여 차례나 신앙강연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받은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는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MBC 워싱턴 특파원과 뉴스데스크 앵커, 보도국 부국장 등 25년간 방송인으로 활약해온 조정민 동문(23회·MBC 대표이사·사진)이 미국 유학길(신학공부)에 오를 준비에 바쁘다.



조 동문은 오는 8월 부인, 두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가을 학기부터 보스턴 고든콘셀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과정(3년)을 이수할 예정이다. MBC 기자 시절, 논리정연하고 간결하며 때로는 역동적인 표현으로 뉴스를 전달, '잘 나가는 기자'로 손꼽혔던 조 동문이 이처럼 180도 변신하게 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5년 전 어느날 오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온누리교회 허봉조 목사실에서 그를 만나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것. 조 동문은 변신(?)과 함께 먼저 '믿음의 가정' 구축을 결심하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1년반쯤 지나면서 부인의 신뢰를 받게 됐다. 앞서 그는 부인(홍지혜)이 새벽기도를 꼬박꼬박 나가는 것에 대해 '불륜' 아니면 '광신'이 아닐까 하는 의심 속에서 부인을 미행(?), 온누리교회에 나가다 그만 '예수의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1시간씩 새벽예배를 드리던 철순노모를 교회로 인도, 기독교인으로 새로 태어나게 했다. 특히 두 자녀에게 그간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을 사과했고 이후 친구처럼 가까워졌다. 조 동문은 "부인과 두 자녀로부터의 신뢰 회복, 어머니의 개종 등을 통해 사회에서 성공했을 때 보다 훨씬 큰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꼈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세중(12회)
미국 자동차부품시장 진출



박세중 동문(12회·세중공업 회장·사진)은 미국 자동차부품시장 진출에 나섰다. 박 동문은 미국 앨리바마주 몽고메리 인근 포트 디포짓시에 2만5천여 평 규모의 공장부지를 확보, 이르면 내년 초 현지법인 '세중아메리카'를 설립, 자동차부품 생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박 동문은 지난해 말 중국 베이징과 장쑤성 등 2개 지역에 연산 10만대 규모의 배기계통 자동차 부품 생산설비도 구축했다.

허범도(22회)
중소기업청 차장 영진



허범도 동문(22회·사진)은 경기 지방중기청장 재임 중 최근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영진했다. 부산대 경영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허 동문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상공부 기획관리실 등을 거쳐 국무총리실 국무회의 담당관·통상산업부 미주통상과장·UNCTAD 아주담당관·부산지방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청 기획관리관 및 경영지원국장·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중소기업에 미래는 있는가> 등이 있다.

성상철(21회)
분당서울대병원 개원식 주재



성상철 동문(21회·분당서울대병원장·사진)은 지난 6월25일 병원 1층 로비에서 국내 최초의 노인·성인병 전문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은 이 병원 개원식을 주재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하 3층·지상 15층(연면적 4만2000평) 규모로, 현재 매일 1000여 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제 6 회

제6회
李鎭範=6월1일 병환으로 별세
權奇男=(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2 동부아파트 105동 1201호
具河書=(전화번호변경)사무실 055-313-7111, 자택 055-314-3794

제 8 회

安秉權=7월1일 지병으로 별세
郭春守=6월1일 지병으로 별세
李永熙=(전화번호변경)019-249-1874
金在哲=회사와 대학강사 일 모두 끝내고 은퇴, 동창회 회비로 미화 200달러 송금해 음. 미국 310-475-6171

이영호=단국대학교 천안중합병원 임상교수로 부임, 충남 천안시 신부동 238-6 연학제 401호, (관사)041-564-5691, (병원)041-550-6580, 016-498-9924
金乘洙=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855 상현마을 현대성우아파트 283동 902호, 031-272-1857
朴敬植=6월 5일 미국 현지에서 부인 장례식

제 10 회

알림 : 동기회 회비 송금 계좌 번호 농협 484-12-019997 예금주 정종만
徐徽河=허준정형외과의원 원장.



051-524-3399, 부산 남구 대연1동 873 백화맨션 207호, 051-627-1508
金昌國=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1023 현대아파트 105동 208호, 052-254-2208
金時元=울산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167 상작마을, 052-264-5859
金一圭=부산 동구 초량1동 545-7, 051-441-0659

金榮福=말이 Indiana주립대학교에서 Financial Math의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Syracuse Uni, N.Y.에서 교수로 재직중
金汶熙=법무법인 신촌 설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57-12 태영빌딩 3층, 02-333-2477
鄭寅浩=(자택이사)경기도 용인시 성곡동 LG빌리지 6차 611동 601호, 031-276-6143
車東烈=(자택이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I PARK 분당 103동 1104호, 031-785-2324
成 溫=(자택이사)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LG 자이 906동 2001호, 031-304-2365
趙守榮=70년도에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재직할 때 많은 인력을 송출하는데 기여했다는 공

로로 정부로부터 상을 받음

제 11 회

金東基=6월14일 서울 센트럴웨딩홀에서 차남 기민군 결혼, 051-645-4616, 019-520-4616
洪起煥=부산의과대학교수, 5월3일 부산호텔 예식장에서 아들 창호군 결혼, 051-503-3490, 019-644-3433
曹楊鉉=(자택이사)서울 성동구 옥수2동 삼성아파트 110동 1302호, 02-6212-0711, 011-720-1533
李鍾述=(자택이사)부산 남구 용당동 한신문화아파트 101동 903호, 051-291-4000, 019-9102-4040

천길 벼랑 위에 올라 "아, 이제 살았구나!"

재경경팔산우회 산사나이들은 지난 5월24일 작년부터 노래하다 시피 한 포대능선에 도전,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만용(?)을 부렸다.

김영철 회장을 비롯한 6명은 이날 이유환 산행대장의 리드로 산행에 돌입했다. 초반에는 콧노래 부르듯 여유있게 오르던 일행은 차차 길이 험해지면서 철주와 와이어로프가 앞을 가로막자 긴장하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바위를 뒹구고 마치 곡예를 하듯 내려갔다 다시 올라

재경경팔회 산우들 대망의 포대능선 등정기

이유환

와서 와이어에 전신을 맡겨야 하는 아찔함... 위로는 까마득히 하늘 끝에 매달린 사람과 사람들, 아래로는 손을 놓았다하면 천길 낭떠러지가 아닌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 흰 암봉과 신록이 엮는 절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간신히 능선 위에 올라섰을 때 성취감보다 '아,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온몸을

짜릿하게 휘감았다.

산을 내려올 때 무사함을 자축하는 맥주는 그 어느 때 것보다 시원했고, 옛말 포대능선 에피소드를 듣느라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몰랐다.

이날 모두가 아찔아찔한 순간 순간을 잘 넘길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로는, 문규환 동문이 준비해 온 한방보제를 한모금씩 마신 것. 이는 등정에 큰 활력소가 되었다.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건강하게 삶을 가꾸는 것이 중요함을 실감한 하루였다.

전원 '완주금메달' 목에 걸고...

삼일마라톤회 10km 코스 대회 출전기

최해영

창립한 지 1년도 안 되는 우리 삼일마라톤회 마니아들이 기량을 평가받고 싶은 마음으로 지난 5월11일 열린 다대포마라톤대회 하프코스에 도전장을 냈다.

이날 선수는 손정수 회장을 비롯, 안기수 조기준 이승진 정정남 최해영 등 6명(회원 중 성오룡 김생수는 개인사정으로 불참).

오전 9시3분 상공에 헬기가 떠 있는 다대포 대회 출발점.

팡! 총성이 울린다. 인산인해를 이룬 선수들이 밀고 밀린 채 첫발을 내딛는다.

우리팀은 '전원완주'를 목표로 맨 뒤에서 천천히 달리기로 하고 조기준 트레이너의 옆구리에 붙어 달린다. 4.5km에서 10km 반환점을 돈 선두주자들이 총알같이 지나간다.

10km 반환점은 무지개공단 지나 장림 들어가는 삼거리. 승진이 부인과 딸들이 손을 흔들며 응원한다. "아빠 파이팅!" "여보 파이팅!"

7km지점 해사랑 앞 통과. 중앙선에 있는 우리의 사진사 이 박사가 반환점을 향해 웃으며 뛰고 있는 우리의 포즈를 놓치지 않는다.

75km 지점인 선경 뷰 아파트 현장 못가 유틸한 조기준이 반대편 우리 뒤를 보고 "31회 파이팅!"하고 격려한다.

울속도 야외영화관람장 앞. 주

어느새 끝인지점이다. 차례로 끝내고 승진이 마중을 나간다. 그의 딸(애영)이 승진이와 같이 뛰어오고 있다. 부인들이 너무나 좋아한다.

자랑스런 완주 금메달을 전원 목에 걸고 기념촬영을 한다(사진). 응원단과도 추억을 남기기 위해 '찰칵!'한다.



제31회동기회 마라톤회 마니아들이 다대포마라톤대회 10km코스에 출전, 완주기록을 세운 후 '완주 금메달'을 목에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측에서 제공하는 바나나를 먹으며 신호공단 입구 반환점을 돈다(10:20).

16km지점에 오니 정남이도 쳐져 있고 기수는 발목이 아프다고 한다. 승진이는 보이지 않는다. 정수가 "이제부터 각자 알아서 끝인 지점까지 달리자"고 한다.

완주한 선수들은 성취감에, 열심히 응원한 가족들은 행복감에 사로잡힌 값진 날이다.

엄궁 미당갈비랜드에서 김상수 합류 속에 뒤풀이를 벌여 동문 가족들이 화합을 확인한다. 몸과 마음의 피로를 씻어낸다.

해전 다룬 장편소설 <가블린의 바다> (상·하)

천금성 (14회) 지음

농학사에서 원양어선 항해사로, 다시 해양작가로 변한 천금성 동문(14회)은 2년의 시련 끝에 본격 해양소설 <가블린의 바다(상·하)>를 최근 출간했다(도서출판 글마당).

천 동문은 이 <가블린(Goblin-악마·마귀)...>을 발표하기 위해 1년 동안 '2001해사 순항항해'와 '2002년 립택순환함대' 등 두 차례에 걸쳐 일급 척의 해군 전투함에 번갈아 편승, 귀중한 체험을 쌓고 각종 자료들을 수집했다.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자 사건의 무대는 2007년 남지나해와 필리핀해이다. 20여 년 전부터 해양패권을 꿈꿔온 중국 해군의 대규모 함대를 제압하기 위해 미 태평양함대와 일본 해상자위대 함대가 작전을 펼쳤고, 당연히 남지나해와 필리핀해는 제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된다. 이 같은 후유증으로 우리 상선대가 통상 항로를 잃고 고립 속에 빠져 든다.

소설은 우리 해군의 작전사령관(이창규 제독)이 한미연합사의 작전지휘권을 뺏고, 우리 화물선의 호위항해작전에 구축함 '이순신함'을 남지나해로 출동시키면서 시작된다.

서울대 농대를 졸업한 천 동문은 해양소설을 쓰겠다고 하며 한국원양어업훈련소 어로학과에 들어갔고 해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항해사로 새롭게 출발, 인도양 어장을 누볐다. 참치잡이 갑판에서의 체험기이자 최초의 해양 단편소설인 <영해발부근(零海拔附近)>이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소설가로 데뷔했다.

천 동문은 그간 <허무의 바다> 등 6권의 창작집과 <표류도> <남지나해의 끝> <인간의 욕망-3권> <시지푸스의 바다-2권> 등 장편소설을 펴냈다. 현재 전국 회원 100여 명이 가입돼 있는 한국해양문학기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동문이 펴낸 새 책

이론·실무 접목시킨 <예술경영>

이영두 (19회) 지음

동주대 교수 겸 기획사무처장인 이영두 동문(19회)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예술경영' 이론을 체계화시킨 <예술경영>을 펴냈다(세종출판사). 580쪽에 이르는 이 책은 이 동문의 문화-예술 경영에 관한 세 번째 전문서이다.

인류를 지배해온 토지 노동 자본 등과 같은 유형의 가치들이 지식·정보·문화라는 무형의 가치들로 대체되는 지식기반 문화사회로 이행되고 있다. 문화예술 창작물은 물론 영리조직인 기업의 제품 서비스 창출에서도 문화예술적인 요소와 감각이 경쟁력의 한 핵심적인 원천이 되고 있는 문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도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문화복지에 대한 수요증대로 이어졌고, 그에 따라 공연장 전시장 등 다양한 문화공간들이 보급 확대

되면서 '예술경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전문인력의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경영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동문이 문화예술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과 경영이라는 보편성을 조화시켜 창조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론서를 펴낸 것은 참으로 뜻깊은 기여가 아닐 수 없다.

이 동문의 <예술경영>은 어느 때보다도 예술경영의 필요성이 절실한 21세기를 맞아 문화 예술 인프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매우 유익한 내용을 담은 역저로서 일독을 감히 권한다.

추천의 글 / 신윤태(13회) 중앙대 예술대학원장



제 11 회

- 申尙烈 = 신어추모 납골당 부산지사장. 019-9113-1125
- 李在珍 = 삼보상사 감사. 031-796-4191~3, 011-9340-3451. (자택이사)서울 강동구 길2동 470 현대아파트 101동 108호
- 柳興洙 = 한나라당 국회의원. 6월 27일 동기회사무실 인사차 방문. 수영구지구당 전화. 051-759-0777

제 12 회

- 朴文基 = 성일주유소 개업. 부산 사하구 구평동. 051-262-8494
- 김중수 = 장남 기범군 대연동에 김기범한의원 개업. 051-624-

- 7575. 621-7775
- 金孝求 = 6월15일 목화예식장에서 자녀 결혼
- 許垠道 = (자택이사)경남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237-3 동일스위트아파트 105동 104호. 055-363-2448
- 金準鐵 = 6월25일 김준철 회장 주재로 지역동기회(중 서 영도 부산진 동구) 모임 개최
- 鄭榮喆 = 7월3일 영도로터리 회장 취임

제 13 회

- 安秀雄 = 6월14일 별세
- 蔣榮吉 = (자택이사)부산 사상구 학장동 820-1 무학아파트 203동 1103호
- 白元浩 = 7월6일 노블리아 루버



- 홀 4층에서 장녀 결혼
- 崔永才 = 대우버스(주) 대표이사 취임.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88-9. 051-811-4001

제 14 회

- 金光博 = 청심자병원 장례식장 대표. 6월15일 삼보예식장에서 차남 결혼. 051-469-1854~5, 011-552-4903

- 姜莢伊 = 롯데제과(주) 양산공장 관리이사. 055-370-6011. (자택이사)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 낙천대 110동 1705호. 051-331-4845
- 孫義雄 = 정손공인중계사 소장. 부산 사하구 하단1동 613-9. 051-291-2388, 011-587-4683
- 朴貞雄 = 7월8일 오랜 투병 끝에 별세. (자택)051-702-6254

제 15 회

- 李陽春 = (자택이사)울산 남구 신정1동 1839-1 청운빌라 207호
- 鄭基文 = 6월28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차녀 지영양 결혼
- 金三用 = (주)세중여행사 (사무실이전)부산 동구 초량동 1198-7 조선일보빌딩 6층

- 金秉洙 = 국회의원. 6월24일 부산 동기회관 방문. 금일봉 전달

제 16 회

- 趙明澤 = (이전개업)삼보양곡창. 부산 중구 부평동2가 삼보예식장 뒤. 051-254-7487
- 李鍾喆 = 부산광역시의원(보사문화분과위원장). 051-623-3078. 6월29일 웨스턴조선비치호텔 1층 대연회장에서 차녀 재화양 결혼
- 姜軫中 = (자택)경남 진주시 상대동 198-28. 대마도수학여행사 짝은 예술사진 동기회로 보내음
- 李鍾昇 = 주영광교회 목사. (자택이사)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173 문화아파트 507호. 051-254-0470 <6면에 계속>

제8회동기회



빛 속에도 관악·도봉산 올라
재경산우회(회장 김영철)는 지난 7월 12일 수락산, 19일 관악산을 차례로 오르는데 이어 26일에는 도봉산에 올라가 호연지기를 폈다.
한편 산우들은 지난 6월28일 비온 뒤의 관악산 능선에 올라 청정한 하늘과 맑은 공기가 빛은 확 뿜 시기에 탄성을 토했고, 앞서 14일 우중의 도봉산에서는 농익은 서정에 흠뻑 젖었다.
지난 5월 산행은 수락산 관악산 도봉산 포대능선 등을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59명이 도전했다.

우승 이양희 동문·장은아 씨
골프모임 잔디회(회장 배우원)는 지난 7월3일 안성CC에서 제123회 월례회를 열었다. 무더위가 심한 8월에는 행사를 쉬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월5일 안성CC에서 25명(7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122회 월례대회 성적은 다음과 같다.
△남자부=우승 이양희(91타·-8)·준우승 배우원·3등 김태규·니어리스트상 박지병·행운상 김영길 동문 △여자부=우승 장은아(94타·-3)·준우승 양춘제·니어리스트상 김정화·행운상 이정자씨.

6~7월 우승 이유환·최대영
이 회장, 우승턱으로 희식비 쾌적
바둑모임 필선회(회장 이유환) 7월 정례회가 지난 7월5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동 한일기원(지하철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에서 50m거리)에서 열려 우승은 최대영, 준우승은 윤태영 동문이 차지했다.
이날 배우원 윤태영 신현주 이유환 김진석 이창근 강성태 최대영 동문 등 8명(도착순)이 실력을 겨뤘다.
한편 지난 6월7일 오후 1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 6월 정례회에서는 이유환 회장이 우승을, 이종수 동문이 준우승을 했다. 이날 이 회장은 우승턱으로 희식비 전액을 협찬했다.
대국 참석자는 이유환 배우원 윤태영 이종수 손대근 신현주 최대영 이창근 김진석 강성태 동문(도착순) 등 10명.

제10회동기회

등산·골프·바둑·테니스 즐겨
경열회의 친목회별 7월 모임은 다음과 같다.
골프모임인 경특회(회장 이정배)는 지난 24일 정오 자유CC에서 티업, 기량을 겨뤘다.
앞서 지난 6월 정기 회장배 대회에서

는 우승 이정배·메달리스트 김상태·준우승 정인호·3위 장기상·룡기스트 변환수·니어리스트 김영덕·행운상 이혜수 동문 차지. 한편 5월 대회에서 우승한 한윤구 동문이 우승턱으로 금일봉을 협찬했다.
산사나이들 모임인 사니조아(회장 이계창)는 20일 북한산을 올랐고 앞서 12일엔 청계산을 등정했다.
바둑모임인 동수회(회장 김영복)는 지난 12일 오후 1시부터 서초기원에서 수담을 나눴고, 테니스모임인 정우회(회장 박철민)는 지난 10일 과천의 관문테니스장에서 기량을 겨뤘다.
한편 강남회(회장 성 은)는 22일 정오 서초갈비촌에서 열기로 한 정례회를 쉬기로 했고, 여의도회(회장 최윤해·15일 정오 대청마루)·일산회(회장 김기문·8일 정오 안산 중앙역 다릿목추어탕)·강북회(회장 이효술·1일 정오 중앙극장 앞 평래옥) 등도 각각 정례회를 쉬었다.

제15회동기회

박 동기회장 잇단 금일봉
의약회(회장 김중광)는 지난 6월16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뷔페에서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를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박찬호 동기회장이 전 동석 자문위원과 최병우 조일량 총무와 함께 참석, 금일봉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화진회(회장 임병철)는 지난 6월1일 오후 7시 소도일식집에서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4차 월례회를, 이화회(회장 강부남)는 같은날 오후 6시30분 옛골삼 밥집에서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를 열었다. 특히 박찬호 동기회장은 최병우 조일량 두 총무와 함께 두 모임에 차례로 참석, 각각 금일봉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동기화관운영위 규정 채택
동기화관운영위원회(위원장 한해수)는 지난 5월30일 오후 6시30분 동기화관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새로 제정한 운영위원회 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일량 운영실장의 화관운영실태를 보고 받은 위원들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16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는 박찬호 동기회장이 참석, 금일봉을 회시하고 격려했다.
재경회 총무 전격 참석
사하회(회장 권승부)는 지난 5월27일 오후 7시 사하구 하단동 만포장회초밥집

에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9차 월례회를 열었다.
특히 모임에는 박찬호 동기회장과 최병우 총무, 재경회의 박호문 총무가 참석해 더욱 알찬 분위기가 됐다.
이날 박 동기회장은 사하회발전기금으로 금일봉을 전달한데 이어 뒤풀이로 열린 단합회에서도 손부총 본부회장과 함께 각각 특찬금을 쾌척했다. 또 중국 청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강길연 동문은 중국제 고급술 한 병을 보내와 즐거움이 배가 됐다.

기우회 새 회장 선임 '불발'
일오기우회(회장 이요섭)는 지난 5월 24일 오후 2시 동기화관에서 회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겸한 월례회를 열었다.
대국 후 열린 총회는 지난 2년간 기우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 회장의 뒤를 이을 신입회장 선임을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 박찬호 동기회장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회장이 쾌척한 금일봉이 모임의 중자돈으로 귀하게 쓰였다.

제27회동기회

주소록·홈키링CD 배부
집행부는 동문 주소록과 졸업30주년기념 홈키링데이행사 CD를 제작·배부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소록은 홈페이지와 각 지역회 회장·총무의 노력으로 전보다 7~8명 더 늘어났고, 자택 주소록 수록했으며, 한자 이름이 틀린 것을 말끔히 고친 것이 특징이다. 또 연락이 영 끊긴 동문 이름은 미확인명단에 포함시켰다.
홈키링행사 CD 경우 1편(42분)에서는 이들간의 축제 모습을 담았다. 2편(35분)에서는 LA동문들의 근황을 김의철 동문(영화감독)이 작곡(?)으로, 3편에서는 부산 동문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이번 작품은 '찍새' 허 한 동문이 캠코더로 담은 동영상과 배재홍 동문이 카메라로 찍어둔 사진들을 두루 편집했다.

제28회동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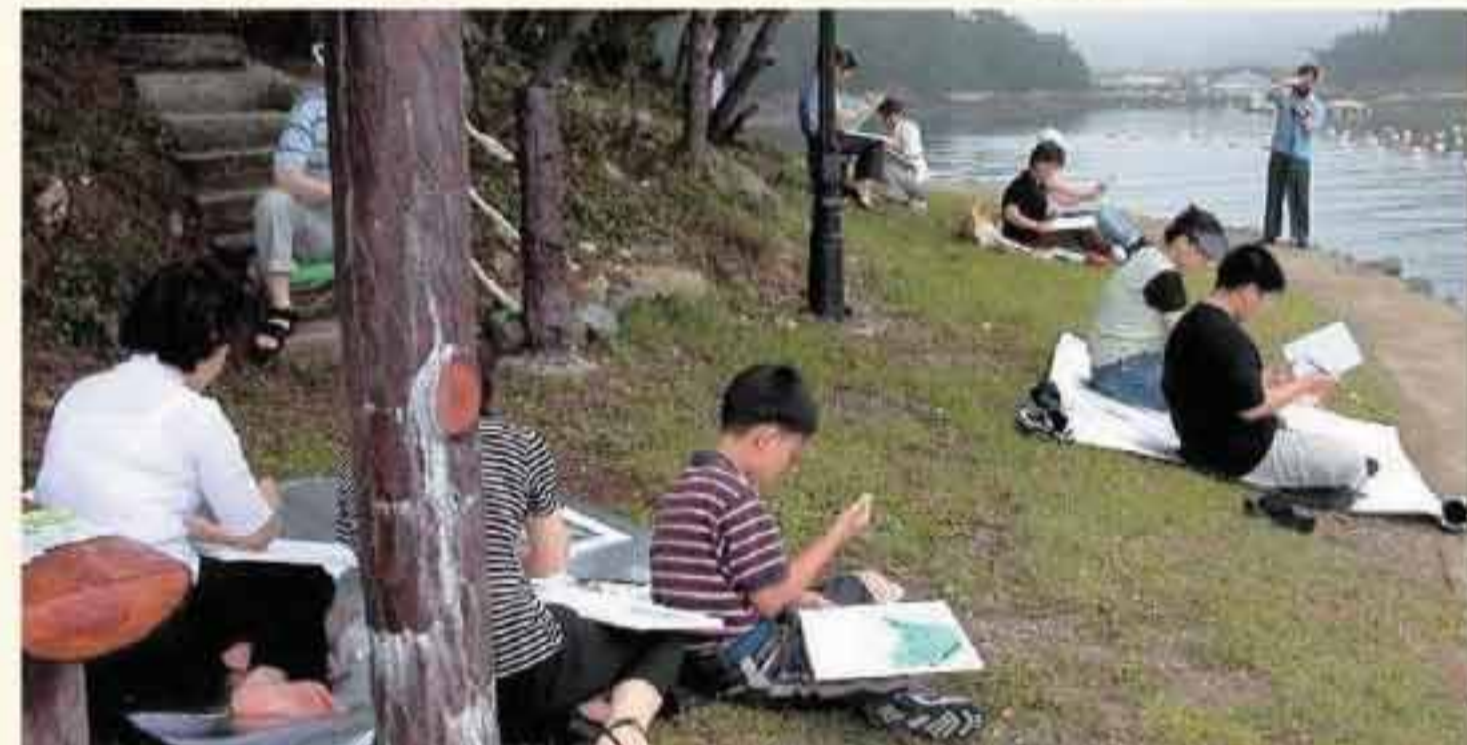
골프우승 구영소·재약산 등정
이팔골프동우회(회장 조광제)는 지난 6월15일 동부산CC에서 14명이 참가한 가운데 월례대회를 열었는데 구영소 동문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팔산우회(회장 김영명)는 지난 7월 13일 19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북 청도 근교 표충사 뒤쪽의 재약산에서 산행대회를 열었다. 일행은 역세밭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자평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1시간쯤 휴식을 취하다가 하산했다.

비경의 섬 수국도서 화합잔치 오목·사생대회 열고 문화탐방도

제28회동기회 여름캠프 기우회 주관으로

제28회동기회 여름캠프가 지난 7월19~20일 경남 통영시 근교 수국도에서 열렸다.
이원용 기우회장이 주재한 이날 캠프에는 이원철 동기회 회장과 김치운 총무 등 52명(가족 27명 포함)이 참석했다. 특히 마창회 정영주 회장 부부와 거제의 김상운·박종기 동문 부부, 부산에서 바로 온 어청우·이승준 부부와 박철원 동문의 성의에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첫날 전야제는 생선회와 킹 크랩(대게) 등 별미 안주로 술잔을

가 5위를 차지했다. 부상은 도서 상품권과 수저 1벌씩이 수여됐다.
둘째날은 기우회 정인식 총무 부인(박광희·여중 미술교사) 지도로 2시간 동안 사생대회가 열렸다. 심사결과 박정진(이원용 부인)씨 등 4명이 수준작으로 평가돼 액자를 탔다. 이어 기우회 총무는 평소 고생이 많은 김치운 동기회 총무에게 그림 한 폭을, 이원철 동기회장에게 판화 한 점을 각각 선물했다.
일행은 귀로에 전혁림미술관과



제28회 용마가족들이 경남 통영시 근교 수국도에서 열린 여름캠프에서 손수 그린 미술 작품들을 앞세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위). 행사 둘째날 송림에서 열린 사생대회에서 가족들이 그림 그리기에 여념이 없다(아래).

나눴다. 2부 알까기대회에서는 광우경(이관선 부인)씨가 우승을 차지했고, 김치운 동문이 준우승을, 김정림(윤경섭 부인) 김애현(양종명 부인) 강미숙(김원홍 부인)씨가 각각 3·4·5위를, 유창근 동문이 6위를 차지했다.
부인들이 겨룬 오목대회에서는 김애현(양종명 부인)씨가 우승을, 김현숙(정영주 부인)씨가 준우승을, 노숙이(권수원 부인)씨가 3위를, 소성훈(소유남 아들)군이 4위를, 김정림(윤경섭 부인)씨

달아공원, 도남유원지 등을 관람한 후 정영주 마창회장이 협찬한 굴밥으로 점심식사를 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조광제(비타민C 1박스) 이원용(대게40kg) 유대준(생선회 40명분) 윤덕승(OB 맥주 7박스) 최광호(피자헛 상품권 10장) 박종기 동문(은수저 30벌)등은 상품을, 이원철 이원용 김원홍 정성목 최태열 김준배 구영소 박영규 서영대 강현안 동문 등은 협찬금(합계185만원)을 각각 쾌척했다.

제 16 회

鄭榮一=(자택)부산 북구 금곡동 리버빌2차아파트 203동 1303호, 051-364-2556

제 17 회

玉奎錫=5월23일 딸 결혼
文錫雄=5월22일 딸 결혼
裴命玄=5월18일 차녀 결혼
殷吉男=5월18일 장녀 결혼

제 18 회

張壽一=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40-1 삼산프리빌리지 601호, (자택)051-817-2909
梁龍吉=환경시설공단 상임이사, 051-760-3203, 011-854-3203

박덕봉=울산시 남구 신정3동 176동13호 대원빌딩 5층 대원 SCN 부회장, 052-289-1700
金喆用=연제구청 총무과장, 051-665-4110
孫永權=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 삼익비치아파트 311동192호, 051-626-1881
梁玪滿=5월3일 금강예식장에 메랄드홀에서 장녀 현진양 결혼
全英錫=부산 해운대구 중1동 808-3 해운대성심병원 소아과장, 051-743-5555, 부산 해운대구 우1동 롯데아파트 3동 1260호, 051-731-0547
池文碩=부산 금정구 서2동 199-19 세웅종합병원 소아과장, 051-522-6000

어디서 무엇을

楊世震=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161-88 (9/2), 051-256-4427
金勇基=부산 남구 용당동 현대I 아파트 103동1201호, 051-625-3632
朴善東=동주대 국제비서학과 교수, 부산 북구 화명동 2264 롯데아파트 낙천대 110동 1804호, 051-336-2167, 011-569-2167
金光浩=부산 해운대구 중동 1506-7 달맞이빌라 402호, 051-742-9177

제 19 회

姜道相=태화치과의원 원장, 051-314-2875
강대형=경찰청 기획수사 심의관
姜良官=남일상사 전무, 051-322-1779
姜永範=(주)협성검정 상무이사, 051-463-6551
姜永守=만경식당 대표, 051-755-2281
姜鍾仁=부산 수영구 남천동 뉴비치아파트 503동 906호, 051-623-2124
姜煥權=배정중학교 교사, 051-643-9074
桂應燦=부산 북구 금곡동 94-1 유림아파트 205동 404호, 051-

364-3660
孔基周=공기주산부인과 원장, 051-504-2552
具玆玉=명인약국 대표, 051-501-4922
權哲賢=한나라당 국회의원, 051-305-8181~5, 한나라당 부산시지부 위원장 취임, 051-625-6601
金曠宇=신우세탁소 대표, 051-202-3219
金敬才=세영선박공업(주) 대표이사, 051-418-4541~3
金光旭=동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감, 051-246-4641~2
金圭夏=호산기업 대표, 051-204-6902
金大陸=대동고교 남성신협 이사장, 051-207-3921~3

이 자리는 보고싶은 용마가족들이
근황을 전하며 만나는 우정의 광장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국내의 거주하는 동문 여러분께서는
동기회나 본부동창회로 소식을 보내십시오.

<6면에 이어>

제 19 회

石武官=본부부회장. 5월24일 그랜드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장남 경환군 결혼

제 20 회

盧基太=노기태 정치경제연구소 사무실 오픈. 부산 연제구 연산 5동 704-19 청림빌딩 2층. 051-862-1401
文亨男=5월17일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가야금홀에서 아들 성룡군 결혼

제 21 회

韓光洙=5월29일 모친 별세. 011-578-8891
金洪珍=5월29일 부친 별세. 019-503-6250
姜洙慶=(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13동 2104호. 051-526-6293. 016-9308-9263
姜榮徒=삼성통증의원(대동병원 맞은편) 개원. 051-557-3350
朴純洋=(자택이사)부산 서구 서대신동 1-35 에머럴드21 402호. 051-248-6058
孫元祚=(화장이전개업)대원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051-816-7799. 011-201-3735
金志浩=6월22일 차남 결혼. 011-830-0158
徐德洙=7월19일 아들 결혼. 011-9530-0031
具正模=6월9일 모친 별세(삼성의료원)
具賢守=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샘마을 임광아파트 309동 1902호. 031-477-7189
金憲元=장녀 외무고시 합격
김현일=관악산업(주) 전무. 02-2240-7950. 011-449-7681. (자택)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은빛마을 618동 302호. 031-967-7689
文相大=인하공사. 032-420-5553. 011-215-5601. 경기도 구리시 토

평동 960 삼성레미안 301동 201호. 031-516-1828
朴鍾完=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986-1 두산위브아파트 115동 1602호. 031-521-6184
朴賢秀=5월31일 워커히에서 장녀 결혼
方孝相=6월5일 모친 별세(강남성모병원)
林明雄=국민감정평가법인 대표. 02-573-5969
鄭驥上=우리신용카드(주) 감사. 02-2222-212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3-22 교보강남타워 12층
崔銅完=서울 송파구 잠실5동 5단지 아파트 501동 709호. 02-413-2135
河炳哲=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68-1 서초아크빌 1301호. 02-523-1378. 011-9067-2013

제 23 회

朴哲乘=본부 감사. 성도회계법인 대표이사. 7월1일 모친 별세
金東沃=동기회 회장. 인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055-320-3115. 011-9305-3115
金益坤=해동병원 병원장. 정형외과 과장. 051-410-6879
金璋燮=세명내과 원장. 부산 북구 화명동. 051-334-6300
金泰鴻=카리스수산(주) 대표이사. 051-231-3307
朴基旭=본부 부회장. 서면 삼오정 대표. 051-819-7555. 서울 해초록 대표. 부산시의원. 011-9206-5065
朴武烈=(주)휘영 대표. 051-802-0395
朴文會=(주)아이 인터내셔널 대표. 051-257-2115
朴守甲=부산노무사 소장. 23산우회 회장. 051-465-4141
白昌英=협성해운(주) 상무이사. 051-463-1451~6
吳世仁=부산시 동래구 명륜2동 동장. 051-550-4904
元仁健=바른눈안과의원 원장. 051-611-4455
李容源=동양화재(주) 정심대리

집 대표. 051-554-5424
鄭琪泰=빅토리아해운(주) 이사. 011-872-9555
河鍾基=하중기법무사. 051-501-7422
許 渡=부산시 영도구청 사회산업국장. 051-413-6801
洪德杓=성전사 대표. 051-645-3535
黃玄鈺=부산도시가스 관리담당 상무이사. 051-607-1006

제 24 회

吳星煥=LG정유(주) 영남제주지역본부 팀장.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62-1 제일생명빌딩 19층. 051-607-7206
朱泳基=(자택이사)부산 동구 초량6동 793-193 (2/3)
崔中植=법무법인 가람 개업. 변호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30-9 2층. 051-781-3339
卞仲錫=HARTRODT 한국지점장. 7월7일 부친 별세
李基元=교육청 기획인적자원과 인적자원개발담당사무관
李明圭=경찰청 본청 인사과장
朴聖杓=건교부 건설경제국장

제 25 회

金 鈴=삼도종합건축사 대표.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7-1 로윈타워 1101호. 507-8922
崔東河=(공장이전개업)부산 사상구 학장동 258-16. 051-316-4001
金鎮喆=본부부회장. (주)디에스아이 대표이사. 055-383-7900. 6월25일 부친 별세

제 26 회

金基俊=6월23일 지병으로 별세
金熙國=농수산물유통공사 경남 부산지사장. 051-644-1401
朴君碩=(주)사스코(SASCO) 대표이사로 취임. 051-831-3900
朴永才=태창기업(주) 감사. 055-370-1240
李載鶴=이재학치과의원.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6-1 개포빌딩

제 32 회

金大都=신명공인중개사 대표. 부산 사하구 하단동. 051-207-8887
全哲弘=(주)아니티리드 대표. 부산 동구 초량3동. 051-464-4752
金光熙=옥천초등학교 행정실장. 051-291-2827
金桂弘=(주)나눔포워딩 대표. 부산 중구 중앙동. 051-462-1030
朴宗求=(주)동화 감리단장. 051-804-9904

307호. 02-3412-2875
房弘基=방홍기소아과의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3-4. 031-730-2070
高在元=고재원이비인후과의원. 서울 송파구 적촌동 295-11 3층. 02-413-6089
李漢榮=이한영소아과의원. 서울 송파구 마천동 183-8. 02-409-0084
崔洛峻=최낙준치과의원.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311 삼호종합상가 303호. 02-3482-4566
金大奎=인강신경외과의원. 인천 부평구 부평1동 464-5. 032-519-6276
金泳洙=김영수성형외과의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0-31 영부빌딩 4층. 02-514-5333
崔應德=사랑이 가득한 소아과의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8-3. 031-484-3131
金景哲=특허법인 세신 대표 변호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회관빌딩 8층. 02-3775-0011~18.
E-mail: seshin@seshinpat.co.kr

제 27 회

金鎮成=6월10일 모친 별세
朴得松=YTN 홍보팀장. 02-398-8000. 011-214-1323
金洋和=부산대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교수. 6월19일 부산대 제1사법관에서 부산대학교 국제지역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정치·경제의 세계사적 흐름과 한국의 진로' 특강. 011-846-1803
李鍾麟=홍익소아과의원 원장. 6월 17일 모친 별세
咸時榮=6월23일 부친 별세. 011-244-2300
朴現浩=6월23일 부친 별세. 019-504-0726
전응희=(주)미디어랜드 연구소장. 02-2142-3680
徐明植=(주)삼아엔지. 02-757-7020
金善永=(주)현대자동차 벨기에 현지법인 이사

제 33 회

宋宗憲=동기회 회장. 6월5일 슈디스 태화 4층에 가게 오픈
朴眞弘=호주조기유학센터 공동대표. 시드니 본사: Suit 208, 4

姜龍乘=삼성중공업 상무
鄭仁哲=삼성전자 상무
郭泰洪=S&S 비만 클리닉 병원 개업
金聖秀=(주)레진마트 설립
高昌佑=(주)씨앤이컨설팅 상무이사
金元用=이화여대 일반대학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겸 뉴미디어 기술연구원 원장
이재룡=Good Morning Golf 오픈
林車榮=홍국생명 상무
鄭重鎮=평택대학교 신학과 교수

제 28 회

崔宗哲=사대부고 교사. (자택)051-731-3503
金用熙=야구 연습목적으로 미국행. 051-582-5745
朴鍾根=골드필창원점. 055-281-3335. 016-592-0792
金大慶=동국물산(주) 상주공장 근무. 054-532-8024. 011-832-3380
李文燮=김해 장유 신안부동산. 055-329-2737. 011-566-4128
金祺部=청와대 부동산세제팀장. 02-733-8953
都明津=하연 대표. 051-241-1041. 011-9510-6565
錢忠源=JC상사 운영. 031-479-0938. 019-221-0472
成海俊=현대자동차(주) 품질관리3부. 052-280-4435. 016-9669-8779
金相宇=(주)한화퇴사후 사업구상중. 032-469-8357. 016-270-8357
金大根=현대중공업(주) 정보기획부. 052-230-3062. 016-235-6960
安 豊=(사무실이전)051-6100-160. 017-5588-211
李源杓=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총괄부장. 055-288-7001
田炳哲=경남외국외고 교장. 055-383-2500
李興吾=새영개발 대표. 051-741-6534
金大允=LG마트 해운대점 현장소장. 051-522-2138

제 34 회

李承勳=(개업)4월25일 하이트노래방. 051-247-7772
鄭然日=5월26일 모친 별세. 017-306-6830
崔雄哲=(개업)6월10일 서면엔젤호텔 9층 지엠가요주점. 011-9510-2357

제 28 회

具永昭=한국주유소협회 부산시회 회장으로 당선. 051-553-1626(주유소협회사무실)
劉鳳秀=수영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 051-620-9211
李康都=산업은행 부산북부지점 부지점장. 051-510-4712
魯承煥=사업구상중. 011-840-1954
孔道成=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 조선기술영업팀 부장. 경남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530. 055-630-3966. 011-457-6834. e-mail: dskong@samsung.co.kr. (자택)경남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제니스타운 103동 903호. 055-636-3756

李光文=성우주택 대표이사.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동 53-44. 055-246-6161. 011-846-1935. e-mail: 0551km@hanmail.net. (자택)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883 삼환3차아파트 301동 706호. 051-543-6203
오호석=대림산업(주)실시 설계부에서 부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5 대림산업(주)빌딩. 02-369-4788. 019-421-8075. e-mail: hsohee@dic.co.kr. (자택)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은하마을 517동 102호. 032-324-8075

제 30 회

崔巨勳=본부 부회장. 법무법인 가람 설립. 대표변호사.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7-1 로윈타워 빌딩 2층. 051-507-7003. 011-877-0702. 팩스 051-507-9916
李浚星=국세청 본청 원천세과장으로 영전

鄭龍洙=PSB부산방송 보도국 카메라기자 차장. 051-850-9364
林仁燮=서구청 교통행정계장. 051-240-4573
辛翰國=(주)대우자동차 명륜영업소 대표. 051-552-8805
白榮泰=(주)이노센트 대표. 부산 사상구 주례동. 051-315-6875
朴英煜=대신중학교 국어교사. 051-255-0941
芮同海=국민은행 김해지점 차장. 055-333-7752

'홈커밍' 기금 9천만원 적립 제27회 '부자동기회'로 도약



제27회동기회기금 9천만원 확보한 '부자회'로 도약했다. 이는 지난 6월9일 오후 7시 부산 범일동 크리스탈뷔페에서 2003년 정기총회 결산보고에서 확인됐다.

김태우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기회 운영 결산보고와 예산안, 홈커밍 행사 결산보고, 기금관리위원회 설립(8월 정례회에서 확정), 경부합동산행대회 계획안, 임원 개선 등 주요의안을 의결했다.

이어 임원 개선에서는 신임회장에 조용수 수석부회장(동아대 건축학부 교수·사진), 수석부회장에 김원대, 수석총무에 이태주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결산보고에 따르면, 회기 중 총수입은 홈커밍행사 기금 수입금(148명 참여) 1억1천900만원을 비롯해 1억4천132만원이고, 총

지출은 일반 및 홈커밍 운영 5천65만원이며, 이월금은 9천67만원이다. 총회는 이월금 중 1천만원 정도만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할 것을 의결했다.

부부 등 9명 사랑의 스퍼트 이칠마라톤회 동백섬 돌아

제27회동기회 마라톤회 6월 스퍼트가 같은 달 14일 오후 6시30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옆 동백섬에서 열렸다.

이날 달리기에는 언제나 '27기발'을 앞세우고 맨 먼저 나와 기다리는 박상훈 회장을 비롯해 먼 곳인데도 먼저 와서 달리고 있는 장기남, 얼마전 포항마라톤대회에서 완주한 '마라톤 3단' 경지의 이형복 부부(부인 한경애), 지칠 줄 모르는 백민호, 여간해서 빠지지 않는 조봉관 부부(부인 김정희), 신도시에서 현장까지 달려온 태기섭 부부(부인 김정희) 등 9명이 참가했다.



서울 우이동 그린파크호텔 은행나무 그늘 밑에서 열린 제18회 2003 경부친선 바둑대회. 올해는 부산팀이 이겨 작년 패배를 설욕했다.

은행나무 그늘 밑에서 '경부바둑' 향연

절치부심 부산팀 승리 축배

제18회동기회 서울서 수담교한

제18회동기회 경부친선바둑대회가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 우이동 그린파크호텔 특별대국장(은행나무 그늘 밑)에서 열려 부산팀이 서울팀에 5승3무2패로 이겨 지난해의 패배를 설욕했다. 서울팀은 지난해 부산 동기회관에서 벌여졌던 대회에서는 4승2패 전적으로 승리했다.

재경회가 주최한 올해 대회는 서울에서 39명, 부산에서 28명이 참가해 우정과 추억을 수놓는 가운데 기량을 뽐냈다.

대국은 부산-서울 모두 10팀(이우삼-이규용·최희영-김학세·김동희-이영범·조정갑-손무열·진상영-이정무·김태균-김중호·김종문-노의성·박성용-한광수·박도형-이준화·장연식-박용주·각 팀 앞 대국자는 부산팀)이 3판 2승제를 치렀다.

격전은 '일단 3판을 두기로 하되 시간이 늦으면 중간에서 끝낸다'는 규정에 따라 어둠이 깃들기 시작한 오후 7시30분 종료됐다.

앞서 개회식을 주재한 재경회 최을봉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김길제 회장을 비롯한 부산 동문들의 건승을 빌고, 출전 선수들을 환영한다"며 "모두 학창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만들자"고 말했다.

부산회 김길제 회장은 답사를 통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최을봉 회장을 비롯한 재경 동문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8시경 베풀어진 단합회 잔치상은 진수성찬(?)이었다. 부산 친구들의 입맛을 의식했는지 값비싼 생선회와 소라명기 성게 등을 비롯, 맛깔스런 갖가지 음식들이 식욕을 한껏 돋웠다.

이팔산우회 창립6주년 기념 등반대회

지리산 천왕봉서 "후라경고!"



천왕봉에 오른 이팔산우회 산꾼들이 창립 6주년 기념 지리산 등반대회의 성공을 기리며 기념 촬영.

'좀 더 일찍, 좀 더 빨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이팔산우회 창립 6주년 기념 등반대회가 지난 6월 14~15일 지리산에서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김명영 산우회장 등 20명(동문 17명·초청인 3명)이 참가했다.

14일 오후 5시40분 부산시민회관 앞을 출발한 일행은 산청휴게소에 잠시 쉬었다가 밤 9시경 백무동 민박집에 도착했고 버스가 특찬한 바다장어구이로 상을 차리고 단합회를 즐겼다.

백무동 계곡의 청아한 물소리에 새벽잠을 깬 일행은 이른 아침 5시에 매표소를 통과한 후 하동바위(05:50)~망바위(07:30)~장터목(08:20)~천왕봉 정상(11:20)~법계사(12:35)~중산리매표소(14:40)로 내려왔다.

시원한 막걸리 등으로 갈증을 풀 일행은 산우회장의 다달에 못 견디 부산행 버스에 올랐고, 일찍 서든 바람에 오후 6시쯤 부산 거제동 법조타운에 도착, 부근 놀부부대찌개 집에서 해단식을 치렀다.



산행을 마친 후 서울 동문들이 천태산 들머리에 한 줄로 서서 부산으로 떠나는 동문들을 환송하고 있다.

천태산 가득히 '용마기상' 메아리

제27회동기회 서울·부산 동문 산행대회 71명 참가 프랑스·뉴질랜드에서도 참여해 즐거움 배로

제27회동기회는 제5차 경부합동산행대회가 지난 6월22일 충북 영동 근교 천태산(714m)에서 동문·가족 71명(부산 43명·서울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재경회가 주관한 올해 행사는 이칠산우회 제152차 산행대회를 겸해 열려 성황을 이뤘다. 특히 프랑스의 최병선, 뉴질랜드의 장세영 동문이 극적으로 참가해 반

가움이 열렬한데다 서울의 김건국 회장과 이종운 총무 등 집행부가 알뜰하게 준비하고 프로그램이 재미있게 구성, 진행함으로써 즐거운 하루가 됐다.

이날 10시30분경 산행 들머리 주차장에서 상봉한 서울·부산 용마가족은 김건국 재경회장의 환영사와 조용수 부산회장의 답사, 가족 소개, 선물 교환 등을

마치고 등산을 시작했다.

일행은 중간중간 밧줄을 잡고 바위를 오르는 등 1시30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린 후 정상에 도착했고, 점심식사와 넉넉한 휴식 끝에 오후 1시30분 하산길에 올랐다.

오후 5시30분부터 열린 단합회는 기성 가수 뽐치는 부인들의 열창과 동문들의 장기자랑이 '찰떡궁합'으로 엮여져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내년 행사는 부산 측이 주관하게 된다.

제 29회동기회 임원명단

상임이사

이승호 정대현 황유명 오경호
윤종경 김영화 이성렬 정길
이경호 김재현 김대욱 이석조
한휘철 정유성 박기찬

회장 오세용

부회장

박성철 김용식 윤문수 권두진
김영훈 김대영 서영학

감사 양승용

이사

권오영 강성일 김용채 김재우
김민호 김기영 김광만 김연래
김한일 김세원 김부겸 김부근
김수한 김철오 김태호 박상길
박철환 박영기 박영환 박병만
박광우 박병률 박정환 박동일
방인찬 배정엽 배현호 이해중
이정윤 이중희 이상용 이용남

이문열 이성우 이상진 류광현
류광열 오일준 송경문 서치홍
서석철 심원섭 임광열 문덕환
정진환 전장화 정성훈 장휘열
전진호 좌경보 조진수 정문상
장만 제영묘 정원국 최정만
최원락 최종열 최문성 표광민
현계성 황맹균 허경도

총무 이충원